

“경주는 내 그림의 화두... 충만한 자부심 안겨줘”

‘천년 신라의 꿈’ 초대전 연 박대성 화백

9월 8일부터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는 수묵의 불국토로 변했다. 은은한 먹빛 부치는 화폭 곳곳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동서양의 경계를 오고 가는 작품은 동양의 여백과 서양의 기교를 한 자리에 담아 거러잡음이 자신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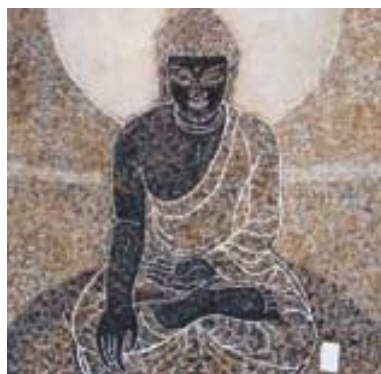
한국화의 대가 박대성 화백이 경주 남산 아랫자락에 작업실을 차린지 6년만에 그 동안의 결실을 기획초대전 ‘천년 신라의 꿈’에서 모두 풀어냈다.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하다보니 첫 출발은 사실적인데서 출발했다”는 박 화백은 “현장을 충실히 담는데서 출발했던 내 그림의 시작은 세월이 흐르면서 붓은 적게,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이미지는 크게 그리게 됐다”고 작품의 경향을 설명했다.

그림 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단상은 그림 한 칸에 곁에 적었다. 초서체와 추사 김정희 선생을 좋아하는 박 화백이 직접 쓴 글씨들은 글과 그림의 경계를 넘나든다.

10월 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2층 3전시실, 박 화백이 마음먹고 ‘대작’ 들로만 꾸며놓았다. 석굴암 본존불과 십대제자가 배열된 안쪽 코너 ‘법열’은 벽을 세워 마치 석굴암에 들어온 것처럼 장엄한 느낌을 살렸다. 합장하고 향이라도 사를 분위기가.

‘법열’ 앞에는 탁본 기법으로 신라를 그린 ‘천년 신라의 꿈-원웅의 세계’와 금강산과 중곡산의 이미지를 혼용해 하늘에서 내려다보듯 그려진 ‘현율(玄律)’, 인왕산과 화엄사 각황전을 환상적으로 배치한 ‘백운



석굴암 본존불을 현대적 감성으로 담아낸 ‘법열’.

(白雲) 등이 시선을 돌릴 수 없게 만든다.

2전시실에 걸린 가로 10m에 달하는 ‘불보의 세계’는 통도사 입구에서부터 금강계단 영취산에 이르기까지 낮밤을 한 화폭에 담았다. “절의 경치가 워낙 뛰어나서 ‘절경’”이라 말하는 박 화백은 통도사를 제일 좋아한다. “영축산도 좋고, 절 건 축이 되락하고 불사를 적당히 한 역사와 숲결이 배어나는 절”이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합부로 개불 단청 불사를 하는 것은 문화재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회업 50년에 들어선 박대성 화백은 “인생에 있어 무언가를 찾아 해매면서 막연하게 그림이 좋았다”며 “이제 그림은 ‘화두’가 됐고 그림을 그리는 내 생은 어떤 삶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자부심을 안겨주는 삶”이라고 고백한다.

박 화백에게는 24시간이 모두 작업시간이다. 그림 그리기에 몰두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림

을 놓지 않는다. 그림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24시간 풀가동체제다.

박 화백은 1995년 불국사 그림으로 화단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때를 회고하며 당시 불국사 주지 설조 스님과 부주지 성찬 스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했다.

“무턱대고 찾아가 방 하나 달라고 조르는 낮모르는 화가에게 설조 스님과 성찬 스님은 방을 내주셨어요. 불국사 무상출입에, 밤에도 다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근 1년을 머물며 불국사의 사계를 담았습니다. 각각 가로 8m, 세로 9m짜리 대작 불국사 그림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시에서도 탄성을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됐지요.”

설조·성찬 스님에게 아직도 마음의 빔을 지니고 산다는 박 화백은 “미래불사는 이런 문화작업에서 나올 수 있다”며 불교 사찰 등을 소재로 작업하는 예술인에 대한 스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했다.

가톨릭신자인데 왜 이렇게 불교 이미지에 매달리는지 궁금했다. “불교집안에서 자란 탓도 있지만 우리 전통문화는 불교 문화의 뿌리가 깊고 사찰이 좋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70년대 신부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에 가톨릭에 귀의했지만 평생 절만 찾다니며 그림을 그렸다”고 인연을 설명한다.

이제 박 화백은 풍경 그림을 조금 멀리하려 한다. 지난해 화갑이 지난 박 화백은 그림인생을 회향하면서 다시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에 나서고 싶다는 소망을 말한다.

“앞으로 풍경보다는 현대 조형언어에 맞는 성화 불화를 그리고 싶어요. 전통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대적인 종교그림을 그리는 것이 남은 꿈입니다.” (02)720-1020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탁본기법을 도입한 ‘천년 신라의 꿈-원웅의 세계’는 신라가 가진 이미지를 곳곳에 담았다. 작품앞에 선 박대성 화백.



‘화음’.

“
확기적인 불국사 그림으로 화단에 ‘충격’
붓질 줄이고 이미지는 강렬하게 작업
현대 조형언어로 표현한 종교 그림이 ‘꿈’
”

선과 선이 만나 마음으로 흘러간다 법관 스님 ‘心象心流’展

무의식적으로, 붓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색칠한 작품, 서양화의 틀에 동양화의 재료를 부은 작품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다.

법관 스님(능가사 주지)이 지난해부터 그려온 작품들을 들고 ‘심상심류(心象心流)’를 개최한다.

서울 관훈동 율곡리에서 9월 19-26일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총 2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강렬한 색상과 복잡한 선으로 대변된다. 복잡한 선이 이리저리 얽혀있지만 눈에 거슬리지는 않는다. “선이 다른 선을 만나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이야기 한다.

그동안 그려왔던 선화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복잡한 선들을 물 흐르듯 그려냈다. 마음가는데로 흐르는 선 위에 마치 단정처럼 강렬한 색상을 덧입혔다. 스님



수행하는 틀들이 ‘차 한 잔 마실 시간’ 만큼 투자해 그려낸 스님의 작품들은 선화의 또다른 모습이다.

에게 눈에 보이는 복잡함의 실상은 단조로움이다.

법관 스님은 “실제로 작품을 오래 길게 하지 않고 마치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들이는 것처럼 그림에 시간을 할애한다”며 “그림에 하루종일 매달리기는 싫고 그저 그리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또한 “수행이라는 본분이 있다 보니 작품은 전부가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미술평론가 신항섭씨는 “법관 스님의 작품에서 수많은 선들이 엮이면서도 시각적인 혼란을 피해 하나의 완결된 조형 세계를 구축해가는 것을 보면 그 감각이 놀랄만 하다”며 “법관 스님의 그림은 보는 사람에게 매달리기는 싫고 그저 그리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또한 “수행이라는 본분이 있다 보니 작품은 전부가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02)738-1148

강지연 기자

월간 『불교와 문화』 9월호 발간!



9월호에서는 연속기획 <다시 생로망사(生老病死)를 생각하다>의 두 번째 주제인 ‘노년’을 커넥티브로 다루어 단지 늙음으로서의 노가 아니라 확고한 가치를 드러내는 시기임을 조명했습니다. <신행 335일> 코너에서는 불교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의 활동상을 소개. 범국민적인 관심을 고취 시키려 합니다. 광복 61돌을 맞아 불교계에서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한 가운데 윤광 태허 스님을 기리는 “제1기 윤안 김성 숙 항일운동 사적지 증국단방담”이 발족되어 『불교와 문화』에서도 동행 취재기를 실었습니다. 또한 불교계 유일의 서양음악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레호모닉오케스트라가 도심 법당에서 펼친 ‘월호 스님의 모차르트 이야기’ 페마 연주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실었던 <독자들 세상>에서는 독자가자가 도심 속 숨은 것들을 찾아 소개한 글을 비롯하여 감동어 느껴지는 ‘빛나는 빛’입니다. 등 중실한 읽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구독 및 광고문의 : 02-706-1570(『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 문제해결 신사님역사 / 지서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혀지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주는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한 문제해결 신사님께서 일제강점기를 풍요한 명안총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았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한 문제해결 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진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파 우주생명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전달하여 낱알이 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마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초요법, 기주입법, 기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기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상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려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기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 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